



일제강점기 태평양 남양군도 5800여명 강제징용 반 이상이 광주·전남 출신

진상규명위 밝혀

일제 압박기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강제징용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사이판 등 중서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일대 섬, 즉 남양군도에 끌려가 고된 노동에 혹사당한 한국인의 대부분이 지역민들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신청과 인정, 그리고 최근 실태가 규명된 남양군도 한인 노무자 중 광주·전남 출신이 전국 각 시·도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 접수 결과 전체 23만 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각각 3만2천 건, 4천600건이었으며, 전남의 경우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접수 건수 중 강제동원 피해가 인정된 12만 건 중에서 전남은 1만4천700건(광주 3천300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였다. 또 위원회가 지난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조사를 벌여 최근 발표한 '1939년~1941년 남양군도 한인 노무자 강제 동원 실태 자료'에 따르면, 강제 동원된 노무자 중 광주·전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원회 김명환 조사팀장은 "일제강점기 하 한국인의 남양군도 송출을 맡았던 남양항발주식회사가 주로 호남권에서 노무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으며, 역사 자료를 추적해보니 당시 광주에 사무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인 노무자 송출을 맡은 업체는 모두 10여 곳이나 됐으며, 이중 남양항발주식회사가 가장 큰 규모였다. 남양군도는 1914년부터 1945년 8월 종전 때까지 일본의 위임통치를 받은 미크로네시아 일대 섬들로,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1938년 당시 남양군도에 거주하

는 한인은 전체 인구의 1%인 704명에 불과했으나 일제 강제동원으로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 1941년에는 전체 인구 증가분의 42%를 기록하며 5천800여 명에 달했다. 비행장 건설과 사탕수수 재배 등에 혹사당한 이들은 1941년 전쟁이 터지자 총알받이로 몰려 폭격과 굶주림에 시달린 끝에 약 60% 정도가 사망했고, 살아남은 이들도 상당수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진상규명위는 파악했다. 남양군도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에는 현재 50여 명이 생존해 있다. 남양군도에 끌려갔던 최안기(82·해남)씨는 "1943년 남양군도 타니안 섬에 끌려가 매일 15시간씩 설탕공장에서 일하다 대가도 받지 못하고 포로 신세로 미 군함에 실려 3년 뒤인 1946년에야 한국에 올 수 있었다"며 "당시 설탕공장에서 일하던 노무자 중 절반이상이 광주·전남 출신이었다"고 회고했다. /윤현식기자 chadol@



밴쿠버 동계올림픽 오늘 폐막 한국 역대 최고 성적

은 국민에게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는 선물을 안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1일 막을 내린다. '피겨 여신' 김연아의 전성 연기, 이상화·모태범·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 이정수(쇼트트랙)의 쾌속 질주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17일간의 여정이다. <화보 18면·관련기사 19면>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은메달 6개·동메달 2개로 중간 종합 순위 5위까지 오르는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피겨 스케이팅에서 '클린 연기'를 펼쳤던 김연아는 한국인 사상 첫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올림픽·세계

선수권·그랑프리파이널·4대륙선수권을 휩쓴 세계 피겨 사상 첫 그랜드슬램의 위업도 남겼다. 김연아의 연기점수 쇼트 78.50점과 프리 150.06점은 새로운 체점제 적용 이후 한 대회에서 쇼트+프리 첫 동시 세계 신기록의 놀라운 점수이기도 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선 이상화(여자 500m 금)·모태범(남자 500m 금·1천m 은)·이승훈(남자 1만m 금·5천m 은)이 예상 밖의 투혼을 발휘해 한국을 새로운 '빙속 강국'으로 올려놓은 영광의 주역들이었다. 쇼트트랙에선 이정수(남자 1천m·1천5백m 금·5천m 계주 은)가 첫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선수단은 1일 오전(한국시

각),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폐막식에 참가한 뒤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향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릴대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의 교육의 요청!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새 봄, 희망의 레이스

오늘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열립니다

3·1정신을 가리며 새봄의 대지를 달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늘 오전 8시30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45회 짙을 맞는 광주일보 3·1 마라톤은 올해엔 동호인·직장·가족 등 1만여명이 참가를 신청해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기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16면> 대회 진행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스로 이용되는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시내버스 10개 노선이 조정되는점 시민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불편 양해 바랍니다

우천시 비옷 준비돼 있습니다

노선이 임시 변경되는 시내버스는 첨단20·풍암61·상무64·대촌69·대촌71·진월77·진월78·송정99·대촌170·대촌270번입니다. 특히 벽진동 소재 연료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충전소 진입이 통제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기상청은 오늘 오전 광주에 10~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대회준비위원회는 비가 내릴 경우 참가자 전원에게 비옷을 지급,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임시변경

노선번호	현행▶변경
첨단 20	첨단-염주사거리-월드컵 경기장 ▶첨단-염주사거리(→화정남초→력키아파트→염주주공)
풍암 61	세하동-대동고-문화전당 ▶매월동-대동고-문화전당
상무 64	세하동-5·18 자유공원-비엔날레전시관 ▶상무지구-5·18자유공원-비엔날레 전시관
대촌 69	칠석-전남고 입구-양동시장역 ▶상무지구-전남고 입구-양동시장역
대촌 71	구소-매월동-양동시장▶매월동-양동시장
진월 77	노대-대동고-세하동 ▶노대-대동고-매월동
진월 78	이동-대동고-세하동 ▶이동-대동고-매월동
송정 99	용봉마을-문촌-양동시장역 ▶용봉마을-문촌
대촌 170	도래-대촌동 사무소-대인광장 ▶대촌동사무소-대인광장
대촌 270	매월동-전남고입구-구소 ▶매월동-전남고입구-상무지구

*벽진동 소재 연료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08:00~13:00까지 진입로 통제

光州日報社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계보청기

1588-8489/001-222-8100